

한국 청소년의 성 행태와 성 경험

이규영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Sexual Behaviors and Sexual Experience of Adolescents in Korea

Lee, Gyuyoung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 행태와 성 경험을 파악하고,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명하여 향후 성 건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2년 제8차 청소년 온라인건강행태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중·고등학생 74,186명이며, 기술통계, X^2 -test,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성관계를 경험한 학생은 중·고등학교 청소년 중 4.3%였으며, 이중 남학생은 5.9%, 여학생은 2.6%로 남학생들의 성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남학생이 학교급, 아버지 학력, 사회경제적 상태, 아르바이트경험, 학교 성교육경험, 거주형태가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고, 여학생은 학교급, 학교유형(공학여부), 사회경제적 상태, 아르바이트 경험, 학교성교육경험, 거주형태가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남녀모두에서 성 경험에 승산비가 가장 컸던 변수는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른들에 의한 물리적 성폭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거절기술이나 의사소통기술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교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남녀 청소년들이 학교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에 비해 성관계 경험이 유의하게 적었던 만큼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경험이 중 어른이나 혹은 물리적 힘에 의한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지표를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거절기술이나 의사결정 기술 등 생활기술을 반영한 학교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sexual experiences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Methods:** Data were analyzed from 74,186 participants who completed the 2012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identify the condition of sexual behavior, and a complex sample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examine the factors related to sexual behavior. **Results:** Data showed that 4.3% of adolescents had engaged in sexual intercourse (5.9% of males and 2.6% of females). According to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complex samples, the school level, socioeconomic status, experience of part time work, and living with parents, were al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ecision to engage in sexual intercourse among boys and girls. In particular, sex education in schools was associated with a reduced risk of sexual intercours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highlight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 program that focuses on enhancing sex education and promoting refusal and better decision-making skills in order to effectively reduce the likelihood of sexual experience among adolescents in Korea.

Keywords : Gender, Adolescents, Sexual Behavior, Sexual Experience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4R1A2A2A01005995)

*Corresponding Author : Lee, Gyuyoung(Chung-Ang University.)

Tel: +82-10-3325-6140 email: queyoung@cau.ac.kr

Received August 24, 2016

Revised (1st September 26, 2016, 2nd October 4, 2016)

Accepted December 8, 2016

Published December 31,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 관계 경험 추이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데 비해 성관계 시작연령은 저연령화 되고 있다[1]. 국가차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2010년 5.3%, 2013년 5.3%, 2014년 5.3%, 2015년 5.0%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성관계 시작연령은 2008년 13.9세, 2010년 13.6세에서 2013년 12.8세, 2015년 13.2세로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1]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의 성관계 시작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최근의 현상들은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로 급격한 사회의 변환기를 맞으면서 다양해진 대중 매체와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과거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전파로[3]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 4]. 또한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선호성은 위험한 성 행동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3] 동성과의 성적 행동과 같은 보다 모험성을 지닌 행동이나 임신과 성병의 위험성을 지닌 성적 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4]. 특히 성지식이 낮아 임신을 했어도 알아차리지 못해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건 중에 한 여고생이 수학여행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영아를 리조트에 유기한 ‘나 홀로 출산’과 ‘영아유기’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어서 청소년들의 성 건강에 대한 위협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5]. 청소년시기의 계획되지 않은 임신은 오랜 기간 신체적·사회 심리적·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병과 에이즈 감염,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가족의 스트레스 등을 발생시키고 있어[2, 6], 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 청소년들의 성 관계나 성 경험을 다룬 국내연구들은 지금까지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7, 18, 26]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8, 13],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9],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5],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연구에서 일부 변수만을 다룬 연구[10, 11, 21], 그리고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의 연구[11, 18, 26]가 대부분이어서 청소년 모두의 특성을 반영한 성 관련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특성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이 시행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사용하여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남녀학생의 성 행태를 파악하고,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명하여 청소년들의 성 건강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청소년들의 성 위험 행동을 파악하고 성 관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구체적 목적을 정하였다.

첫째, 남녀 청소년들의 성 행태를 파악한다.

둘째, 남녀 청소년들의 학교특성, 가족특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성 관계 경험을 비교한다.

셋째, 남녀 청소년들의 성 관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시행한 ‘2012년 제8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중 고등학생들의 성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인과관계연구로서 이차자료를 활용한 단면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제8차(2012년) 청소년 온라인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2011년 4월 기준의 전국 중·고교 재학생으로 정의하였고[12], 고교 유형은 일반계(일반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와 특성화계(특성화고, 마이스터고)로 구분하였다. 표본추출과정은 모집단 층화, 표본 배분, 표본추출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선정된 표본학교는 학년별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학급 학생 전원을 조사하였고, 장기결석이나 장애학생, 문자해독이 어려운 학생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12].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표본학교 800개 8만 명으로 하였으나 이중 797개교의 74,186명 학생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2년 6월1일부터 7월17일까지

로 학교 컴퓨터실에서 개인이 온라인에 접속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법(제 19조)을 근거한 정부 승인통계조사(승인번호 11757호)이며, 2005년부터 수행되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고 제8차 ‘2012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로 소요시간은 45~50분이다[12].

2.3 분석대상 변수

분석대상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7-11, 21-24]를 참고하여 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아래와 같다.

2.3.1 종속변수

2.3.1.1 성경험

성 경험은 ‘성 관계를 이성이나 동성중 한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녀학생을 말한다. 성 경험학생은 전체 3,112명(4.3%) 중에서 남학생 5.9%(2,200명), 여학생 2.6%(91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 경험이란 종속변수로 놓고 분석하였다.

2.3.2 독립변수

2.3.2.1 성 행태

처음 성 관계를 경험한 시기(성관계를 처음 해 본 것은 언제입니까?), 음주 후 성 경험(술을 마신후 성 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까?).

2.3.2.2 학교특성관련 변수

학교특성은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학교급(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학교유형(공학 유무), 학년(중1·2·3학년, 고1·2·3학년), 학교성교육경험 유무, 학교성적(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6개 변수를 말한다.

2.3.2.2 사회 경제적 특성 관련 변수

사회경제적 수준(상, 중, 하), 부 학력과 모 학력(고졸 이하, 대졸이상, 잘 모름), 거주형태(가족, 친척집, 하숙·자취·기숙사, 보육시설), 최근 12개월 동안 아르바이트경험 등 5개 변수를 말한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원시자료 공개 및 활용규정’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고 홈페이지[12]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였다.

2.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복합표본설계정보(층화, 집락, 가중치)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성 관련 행태는 기술통계와 복합표본 X²-test를 하였고, 학교특성과 가족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성 관계 경험은 복합표본 X²-test를 실시하였다.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변량 분석에서 p값이 0.05 미만인 변수를 투입하여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남녀 성 행태

청소년들의 성 행태를 알아본 결과 Table 1 과 같다. 이성이나 동성과의 성교 관련 성경험은 전체 청소년 중 4.3%(3,112명)로 나타났으며, 이중 남학생은 5.9%, 여학생 2.6%로 남학생들의 성경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X²=508.41, p<.001). ‘이성 혹은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에게 ‘언제 처음으로 성 관계를

Table 1. Adolescents’s sexual risk behaviors

Variables	Classification	Total (N=74,186)	Boys n=38,221(%)	Girls n=35,965(%)	X ² (p)
Ever had sexual experience	Yes	3112(4.3)	2,200(5.9)	912(2.6)	508.41 (<.001)
	No	71,074(95.7)	36,021(94.1)	35,053(97.4)	
Sexual initiation experience* (N= 3,056)	≤Elementary period	648(22.4)	447(21.2)	201(25.6)	8.57 (.067)
	Middle school period	1,227(39.4)	895(40.7)	332(36.1)	
	High school period	1,181(38.2)	817(38.2)	364(38.3)	
Sexual experience after drinking* (n=3,112)	No	1,828(58.1)	1,290(58.6)	538(56.8)	.807 (.469)
	Yes	1,284(41.9)	910(41.4)	374(43.2)	

*Skipped responses were exclude

했는지' 알아본 결과, 초등학교 6학년 이하 22.4%, 중학교 39.4%, 고등학교 38.2%로 중학교 시기가 가장 많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X^2=8.57, p=.067$).

청소년들에게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지' 성관계 경험자 3,112명에게 알아본 결과, 41.9%가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했다고 하였고, 남녀별로는 남학생 41.4%, 여학생 43.2%로 여학생들의 분포가 약간 높았으나 성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2 학교특성에 따른 성 경험

대상자의 학교특성에 따른 성 경험을 알아본 결과 Table 2 와 같다. 성 경험을 했다고 응답한 남학생들은 군 지역 7.3%, 대도시 6.0%, 중소도시 5.7% 순으로 군 지역에 사는 남학생들의 성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학생은 군 지역 4.5%, 대도시 2.5%, 중소도시 2.5% 순으로 나타났으며, 군 지역에 사는 여학생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여학생들보다 성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X^2=22.28, p<.001$). 한편 학교급별 청소년들의 성 경험을 알아보았다. 먼저 학교급에 따른 남학생을 보면 남자 중학생의 성 경험은 2.5%, 일반계 남자 고등학생은 7.7%, 특성화계 남자 고등학생은 14.1%로나와 일반계고등학생보다는 특성화고등학생들이 성 경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X^2=1022.65,$

$p<.001$).

한편 학교급 별 여학생들의 성 경험을 보면 여자중학생들의 성 경험은 1.6%, 일반계 여자고등학생은 2.8%, 특성화계 여자고등학생은 6.1%로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성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X^2=270.43, p<.001$).

학교유형에 따른 성관계 경험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남녀공학 6.1%, 남·여학교 5.6%로 남녀공학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성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X^2=3.36, p=.300$).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녀공학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유의하게 성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왔다($X^2=48.34, p<.001$). 남녀별 학년에 따른 성 관계 경험을 알아본 결과 Table 2와 같이 남학생($X^2=1124.63, p<.001$)이나 여학생($X^2=220.138, p<.001$) 두 그룹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 경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중학교 남학생 1학년은 성 경험이 2.2%인데 비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1.6%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은 13.1%,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은 4.8%가 성 경험을 한 것으로 나왔다. 학교성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성 관계 경험을 알아본 결과, 남녀학생 모두에서 학교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에 비해 성 경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왔다. 즉 남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Table 2. Adolescents's school characteries by sexual experience

(N=74,186)

Variables	Categories	Boys (n=38,2219)			Girls (n=35,965)		
		No n(Weighted %)	Yes n(Weighted %)	X2(p)	No n(Weighted %)	Yes n(Weighted %)	X2(p)
Location	Metropolitan	16,657(94.0)	989(6.0)	6.80 (.173)	15,526(97.5)	396(2.5)	22.28 (.001)
	Medium& small cities	15,220(94.3)	918(5.7)		15,658(97.5)	364(2.5)	
	Rural areas	4,144(92.7)	293(7.3)		3,869(95.5)	152(4.5)	
School's levels	Middle school	18,824(97.5)	459(2.5)	1022.65 (<.001)	17,748(98.4)	266(1.6)	270.43 (<.001)
	Academic high school	13,345(92.3)	1,113(7.7)		13,565(97.2)	420(2.8)	
	Vocational high school	3,852(85.9)	628(14.1)		3,740(93.9)	226(6.1)	
School's type	Co_school	24,363(93.9)	1,551(6.1)	3.36 (.300)	22,953(97.0)	703(3.0)	48.34 (<.001)
	Boys or Girls' school	11,658(94.4)	649(5.6)		12,100(98.2)	209(1.8)	
Grade	Middle school 1st	6,241(97.8)	123(2.2)	1124.63 (<.001)	5,911(98.4)	87(1.6)	220.13 (<.001)
	Middle school 2nd	6,259(97.8)	135(2.2)		5,914(98.8)	76(1.2)	
	Middle school 3rd	6,324(96.9)	201(3.1)		5,923(98.0)	103(2.0)	
	High school 1st	6,261(94.7)	345(5.3)		5,715(97.8)	130(2.2)	
	High school 2nd	5,633(90.8)	588(9.2)		5,857(96.4)	237(3.6)	
	High school 3rd	5,303(86.9)	808(13.1)		5,733(95.2)	279(4.8)	
Sex education Experiences in School	No	12,201(92.9)	915(7.1)	52.04 (<.001)	9,829(96.6)	340(3.4)	36.88 (<.001)
	Yes	23,820(94.7)	1,285(5.3)		25,224(97.8)	572(2.2)	
Perceived School records	High	12,920(95.6)	570(4.4)	179.920 (<.001)	11,785(97.8)	247(2.2)	68.48 (<.001)
	Average	9,456(95.0)	493(5.0)		9,715(98.2)	190(1.8)	
	Low	13,645(92.0)	1,137(8.0)		13,553(96.6)	475(3.4)	

없는 학생의 성 경험은 7.1%에 비해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5.3%로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성경험이 유의하게 낮았다($X^2=52.04, p<.001$). 여학생도 학교 성교육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은 3.4%, 있는 학생은 2.2%로 학교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여학생들의 성경험이 유의하게 낮게 나왔다($X^2=36.88, p<.001$).

한편 학교성적에 따라 성 경험을 알아본 결과, 성적이 하위권인 남학생들의 성경험은 8.0%, 중위권 5.0%, 상위권 4.4%로 유의하였다. 여학생은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은 성 경험이 3.4%, 상위권 2.2%, 중위권 1.8%로 성적이 중간이라고 한 여학생들의 성 경험이 유의하게 낮았다.

3.3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성 경험

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른 성 경험을 알아본 결과 Table 3 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경제적 상태가 상위권 5.6%, 중위권 4.9%, 하위권 8.6%로 하위권 학생들의 성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X^2=144.81, p<.001$). 여학생들은 경제상태가 상위권인 학생이 2.7%, 중위권 1.8%, 하위권 4.0%로 중위권 여학생들의 성경험이 유의하게 낮았다($X^2=114.43, p<.001$). 아버지의 교육수준별 성경험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X^2=15.56, p=.001$)과 여학생($X^2=46.93, p<.001$) 두 집단 모두 대학교 졸업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고등학교 이하나 잘 모르겠다)에 비해 성경험이 유의하게 낮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남녀 학생들의 성경험은 남학

생($X^2=26.558, p<.001$)과 여학생($X^2=57.543, p<.001$) 두 집단 모두 어머니가 대학교 졸업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고등학교 이하나 잘 모르겠다)에 비해 성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대상자들의 거주형태에 따라 성경험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두 집단 모두 가족과 함께 산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성경험이 유의하게 낮았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남학생의 성경험은 5.7%, 친척집 17.6%, 하숙, 자취, 학교기숙사(친구들과 같이 사는 경우 포함)에서 사는 경우 8.6%, 보육시설(고아원, 사회복지시설, 보육원)16.4%로 거주형태에 따른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X^2=165.52, p<.001$). 여학생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2.3%, 기숙사 4.7%, 친척집 10.2%, 보육시설 30.8%로 나와 보육시설에서 거주하는 여학생들의 성 경험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왔다($X^2=538.64, p<.001$).

최근 12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경험유무에 따라 성 경험을 알아본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서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이 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성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남학생 $X^2=2066.16, p<.001$; 여학생 $X^2=698.01, p<.001$).

3.4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

청소년들의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를 투입한 복합표본 로지스틱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3 와 같다.

Table 3. Adolescents's socio-economic characteries by social sexual experience (N=74,186)

Variables	Categories	Boys (n=38,2219)			Girls (n=35,965)		
		No n(Weighted %)	Yes n(Weighted %)	X2 (p)	No n(Weighted %)	Yes n(Weighted %)	X2 (p)
Socioeconomic status	High	11,897(94.4)	686(5.6)	144.81 (<.001)	9,451(97.3)	248(2.7)	114.43 (<.001)
	Average	16,373(95.1)	812(4.9)		17,379(98.2)	320(1.8)	
	Low	7,751(91.4)	702(8.6)		8,223(96.0)	344(4.0)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13,526(93.9)	903(6.1)	15.56 (.001)	13,898(97.3)	402(2.7)	46.93 (<.001)
	≥University	15,819(94.1)	881(5.9)		15,212(98.0)	300(2.0)	
	Unknown	6,676(93.9)	416(6.1)		5,943(96.4)	210(3.6)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16,480(93.8)	1,072(6.2)	26.55 (<.001)	17,825(97.4)	473(2.6)	57.54 (<.001)
	≥University	12,558(94.9)	658(5.1)		12,054(98.1)	237(1.9)	
	Unknown	6,983(93.3)	470(6.7)		5,174(96.1)	202(3.9)	
Type of living	Living with family	34,343(94.3)	1,992(5.7)	165.52 (<.001)	33,490(97.7)	790(2.3)	538.64 (<.001)
	living with relatives	399(82.4)	78(17.6)		375(89.8)	40(10.2)	
	Boading&dormitory	1,113(91.4)	101(8.6)		1,080(95.3)	50(4.7)	
	Living in care facility	166(83.6)	29(16.4)		108(69.2)	32(30.8)	
Work at a part-time job	No	30,940(96.5)	1,078(3.5)	2066.16 (<.001)	30,338(98.3)	507(1.7)	698.01 (<.001)
	Yes	5,081(81.6)	1,112(18.4)		4,715(92.0)	405(8.0)	

학교 급(중학교=0, 고등학교=1), 부·모 학력(대학이상=0, 그 외의 변수 1), 공학여부(아니오=0, 예=1), 사회경제적 수준(중상=0, 하=1), 학교성적(상=0, 중하=1), 아르바이트 경험(없음=0, 있음=1) 성교육경험(있음=0, 없음=1), 가족과 함께 거주(예=0, 아니오=1)로 놓고 분석하였다. 먼저 남학생의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급, 아버지 학력, 사회경제적 상태, 아르바이트경험, 학교 성교육경험, 거주형태가 성 경험에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고, 여학생은 학교급, 학교유형(공학여부), 사회경제적 상태, 아르바이트 경험, 학교성교육경험, 거주형태가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남녀 모두에서 성 경험 승산비가 가장 큰 변수는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나왔다. 즉 아르바이트경험 남학생이 경험 없는 학생보다 2.707배 높았고, 여학생은 1.8961배 높았다. 한편 남학생의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르바이트 경험 이외에도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성 경험이 2.082배 높았고, 학교성교육경험 없는 학생이 경험 있는 학생보다 1.354배, 가족과 거주하지 않은 학생이 거주하는 학생보다 1.474배 높았다. 여학생의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아르바이트경험, 거주형태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르바이트경험 여학생이 경험 없는 학생보다 1.861배 높았고, 여고생이 여중생보다 1.509배 높았으며, 학교성교육경험 없는 여학생이 경험 있는 학생보다 1.379배 높았고, 가족과 거주하지 않는 여학생이 거주하는 여학생보다 1.850배 높았다.

청소년들의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남

학생은 아버지의 학력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나 여학생은 무관하였고, 학교유형(공학여부)에서 남학생은 무관하였으나 여학생은 학교유형이 유의한 변수로 나왔다. 또한 청소년 남녀 모두에서 어머니의 학력과 학교성적은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성 관계 경험에 무관한 변수로 나왔다.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성별 성 행태를 파악하고 성 경험 관련 요인을 규명하여 향후 청소년 성 건강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성교육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성 경험은 전체적으로 4.3%였고 이 중 남학생 5.9%, 여학생 2.6%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들과는 유사하였다[10, 21]. 본 조사의 성격과 비슷한 대규모 전국조사인 미국 청소년 위험행동조사(YRBS: Youth Risk Behavior Survey)자료와 성 경험 비율을 비교해 보면 [14], 미국 청소년은 46.8%가 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인 4.3%와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 경험비율과 미국 청소년들의 성 경험율에 큰 차이가 난 이유는 성 개방 인식에 따

Table 4. Predictors of Sexual Intercourse among adolescents

(N=74,186)

Variables	Boys			Girls		
	OR	95% CI	p	OR	95% CI	p
School's levels (Middle school=0, High School=1)	2.082	1.820-2.382	<.001	1.509	.878-.954	<.001
Mother's education (≥University=0, Others=1)	1.037	.925-1.161	.535	.989	.835-1.171	.940
Father's education (≥University=0, Others=1)	1.158	1.043-1.286	<.001	1.007	.842-1.203	.897
School's Type (Boy or Girls's school=0, Co School=1)	1.012	.890-1.150	.859	1.620	1.365-1.921	<.001
Socioeconomic state (Middle or High=0, Low=1)	1.189	1.076-1.315	<.001	1.234	1.012-1.504	.037
Perceived School records (High=0, Middle & Low=1)	.972	.866-1.090	.626	.843	.703-1.011	.065
Work at a part-time job (No=0, Yes=1)	2.707	2.435-3.009	<.001	1.861	1.595-2.171	<.001
Sex education Experiences in School (Yes=0, No=1)	1.354	1.226-1.494	<.001	1.379	1.172-1.622	<.001
Type of living(Living with Parents)(Yes=0, No=1)	1.474	1.236-1.757	<.001	1.850	1.458-2.349	<.001

른 문화적 차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으로 중학생이 포함된 반면에 미국 YRBS 조사 대상자는 고등학생 9학년부터 12학년만을 대상[14]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대가 달라서 오는 차이라고 사료된다. 미국은 중학생을 따로 조사하고 있는데 중학생들의 위험행동을 조사하고 있는 YRBS-MS(2013)자료[14]와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성 관계 경험을 비교해 보면 미국 중학생들의 성관계는 전체 10.8%에서 32.1%이며 이중 남학생 13.3%에서 38.0%, 여학생 7.8%에서 28.0%인데 비해 우리나라 중학생은 남학생 2.5%, 여학생 1.6%로 매우 큰 차이가 났으며 일본 중학생[15]은 3.8%로 우리나라 남자 중학생 2.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15]. 중국은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청소년 대상(13세~19세)으로 성 태도와 성 행동관련 논문 36편을 가지고 체계적인 고찰을 한 연구결과에서[17], 중학생은 1.0%, 저학년 고등학생은 1.0~2.0%, 고학년고등학생과 실업계여자고등학생 3.0~5.0%가 순결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이나 미국과는 다르게 중국 청소년들은 성 경험이 낮으며,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특성화고등학교학생들의 성 경험이 가장 높았는데 중국 논문[17]에서도 실업계고등학생들이 성 경험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성 경험이 높았는데 중국[17]과 일본[15], 미국[1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 관계 경험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청소년 성 경험이 우리나라 청소년과 중국, 일본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미국청소년과는 큰 차이가 났는데 이러한 이유는 서양과 동양의 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우리나라도 점점 미국처럼 성 개방 풍조가 점점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피임과 성병예방교육을 포함한 안전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중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에 따라 성관계 경험을 비교한 결과, 본 연구결과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 관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국내연구[10, 11, 21]와 미국 청소년 관련 연구[14, 24, 25]와도 일치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중학생(남자 3.8%, 여자 4.8%)이나 고등학생(남자 15.0%, 여자 23.6%)할거 없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들의 성경험이 높게 나와 본 연구결과에서 나온 남학생들이 성관계 경험이 높게 나온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성문화가 달라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일본의 경우 청소년들은 포르노, 성인만화, 여성잡지 등에서 성 정보를 많이 습득하고, 특히 여고생들의 원조교재가 특징적이라고 한 연구[16]와 관련하여 유추해 볼 수는 있으나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추후 국가 간의 성 행태 비교연구를 통해 더 밝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처음 성 관계를 경험한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본 결과 첫 성 경험시기가 남학생은 중학교, 여학생은 고등학교 시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다[11, 13]. 성 경험시기를 과거 기억에 의존하여 현재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묻는 문항이라는 한계점은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도 성 관계를 처음 시작한 남학생이 22.4%, 여학생 25.6%로 나타나 초등학교 시기의 성 경험이 1/4를 차지하고 있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임신예방과 피임, 성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함이 시사되었다.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아르바이트경험,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유형, 학교성교육경험, 거주형태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무관한 변수’로는 어머니 학력과 학교성적으로 확인되었고, 남학생은 공학여부 변수에서, 여학생은 부 학력에서 각각 무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대부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9, 11].

본 연구에서 남녀공학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여학교 혹은 남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보다 성 경험 승산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녀공학여학생이 이성애 노출될 기회가 더 많고[5], 친구들의 영향으로 성 경험 가능성이 더 많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이는 성 관계를 가진 친구가 많을수록, 그리고 임신경험 친구가 많을수록 성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27].

남녀 모두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친 변수 중에서 새로이 밝혀진 변수는 아르바이트경험이었다. 이는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이 흡연경험이나 음주경험이 유의하게 높고, 성 관계 경험도 높다는 연구결과[19-20, 27]와도 유사하다. 아르바이트경험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접촉기회와 시간이 많고 성인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성

환경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19]. 따라서 힘 있는 성인에 의한 데이트 성폭력에도 노출 위험이 있으므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물리적 힘에 의한 성 관계’, ‘신체적 데이트 폭력’, ‘데이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과 같은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추후 함께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학교 성교육경험이 없는 학생이 학교 성교육을 받았던 학생보다 성 경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는데 이는 미국의 7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교육 프로그램 결과에서 성적 개시를 지연시키고 보호되지 않은 성 경험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한 연구결과[22, 28]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성에 대한 지식부족은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 에이즈와 성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20]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십대 미혼모와 영아유기 사건등 범죄로 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학교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즉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이 필요하며, 본 연구결과는 학교 성교육이 청소년 성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결과라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어린 청소년일수록 성지식이 부족하고 성 가치관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 관계를 경험할 경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저 출산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는 최근 청소년들의 첫 성 경험 시기가 저 연령화 되어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74,168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남녀 청소년들의 성 행태를 파악한 결과 첫 성 경험 시기는 중학생시기가 가장 많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아졌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 경험율이 높았다. 지역에 따른 성 경험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도시에 사는 학생보다 군 지역에 사는 여학생이 성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고, 남녀공학여학생이 여학교 학생보다 높았다. 성교육을 받은 학생이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성 경험이 유의하게 낮았고, 남녀학생 모두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이 성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사회경제적수준이 낮은 남녀 청소년들의 성 경험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은 남녀학생들의 성 경험비율이 높았

다. 또한 남녀 모두 거주형태에서 시설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성관계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학생은 학교급, 아버지학력, 사회경제적상태, 아르바이트 경험, 학교성교육 경험, 거주형태였고 여학생은 학교급, 남녀공학, 사회경제적 상태, 아르바이트 경험, 학교성교육 경험, 거주형태가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의 첫 성 경험시기가 초등학교 22.3%, 중학교 39.4%, 고등학교 38.2%로 나와 초등학교에서도 첫 성 경험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보다 체계화시켜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성교육 내용에 피임 및 에이즈와 성병예방 등 안전한 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아르바이트 경험은 성 경험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밝혀졌으므로 생활기술(거절기술 및 옹호기술, 자기주장 기술 등)을 강조한 자기관리역량을 함양시켜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들이 성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물리적 힘에 의한 성 관계, 성인에 의한 데이트 성폭력 등의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여 추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성 경험과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넷째, 학교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유의하게 성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왔으므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성 교육을 개발하고, 특히 남녀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성교육이 요구된다.

References

- [1] Dae-jeon: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5.[Internet], Available from: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OTITLE&listid=117_11758 (assessed Jan, 10, 2015)
- [2] M. Y. Kim, S. H. Cho, "Affecting factors of contraception use among Korean male adolescents: focused on alcohol, illicit, drug, internet use, and sex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0, no. 4, pp. 267-277, 2012.

- [3] M. A. NAM, S. H. Ho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deviant sexual activities: focusing on mediated effects of perceptual factors", Korean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 19, no. 9, pp. 93-124, 2012.
- [4] E. S. Cho, "Associations between the internet pornography preference and adolescents risk sexual behavior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Korean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 20, no. 10, pp.291-314, 2013.
- [5] G. Y. Lee, O. A. Sim, "Study on sexual experiences, knowledge and attitudes of freshmen in college by gender", Health and social science, vol. 12, no 34, pp. 159-182, 2013.
- [6] L. B. Finer, M. R. Zolna, "Unintended pregnancy, in the United States: Unintended pregnancy in the United States: incidence and disparities", Contraception, vol 84, no 5, pp. 478-485, 2006.
DOI: <http://dx.doi.org/10.1016/j.contraception.2011.07.013>
- [7] J. H. Lee, "A study on the variables forecasting female high school students's sexual intercourse",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8, no. 2, pp. 111-131, 2007.
- [8] K. H. Kim, H. J. Kwon, H. K. Chung, "A study on the variables forecasting male adolescents's sexual interco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4, no. 6, pp. 954-963, 2004.
- [9] J. O. Yu, H. H. Kim, J. S. Kim,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debut among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20, no. 3, pp. 159-167, 2014.
DOI: <http://dx.doi.org/10.4094/chnr.2014.20.3.159>
- [10] H. J. Lee, H. S. Kang, "Rates and methods of contracep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from 2007 to 2009",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7, no. 2, pp. 148-156, 2011.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11.17.2.148>
- [11] I. S. Lee, G. Y. Choi, S. H. Cha, H. Y. Park, J. J. Lee, "A survey on the sexual behavior of adolescents in South Korea: The third survey in 2007",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vol. 53, no. 6, pp. 512-519, 2010.
DOI: <http://dx.doi.org/10.5468/kjog.2010.53.6.512>
- [12]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eighth(2012)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Internet] Available from: <http://yhs.cdc.go.kr> (assessed September, 1, 2012)
- [13] H. Y. Kim, "The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s of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5, no. 2, pp. 309-328, 2003.
- [14]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United States", Available from: <http://www.cdc.gov/mmwr/pdf/ss/ss6304.pdf>. (Jun, 13, 2014)
- [15] Japanese Sex Education Council, "Sexual behavior of adolescents", The Seventh(2011) Japanese sexual behavior survey report, August, 2012.
- [16] H. Y. Lee, "Comparative analysis of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and sex education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in adolescent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8.
- [17] J. Yu, "Teenage sexual attitudes and behaviour in China: a literature review",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vol. 20, no. 6, pp. 561-582, 2012.
DOI: <http://dx.doi.org/10.1111/j.1365-2524.2011.01054.x>
- [18] S. B. Chang, M. S. Yoo, S. K. Lee, "Self-assertiveness and sexual experience of teenage girls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7, no. 3, pp. 305-316, 2001.
- [19] A national survey on harmful environment of Korean adolescents in 2012 Korea,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vailable from: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7_01.jsp?func=view¤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1646.
- [20] K. Kathryn, H. Stanley, "Teenage pregnancies, births and abortions, 2010: national and state trends by age, race and ethnicity", Guttmacher institute. U.S., 2014.
- [21] G. L. Park, "Sexual behavior and sex education of youth: according to a 2008 online survey on the health of youth", Kyung pook National University, 2010.
- [22] S. W. Hwang, C. W. Chu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contraception behavior of un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 vol. 44, no. 2, pp. 159-169, 2014.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4.44.2.159>
- [23] K. Haldre, K. Rahu, M. Rahu, H. Karro, "Individual and familial factors associated with teenage pregnancy: an interview study",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19, no. 3, pp. 266-270, 2009.
DOI: <http://dx.doi.org/10.1093/eurpub/ckn143>
- [24]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exual Risk Behaviors: HIV, STD, & Teen Pregnancy Prevention", Available from: [http://www.cdc.gov/HealthyYouth/SexualBehaviors/\(September, 24, 2016\)](http://www.cdc.gov/HealthyYouth/SexualBehaviors/(September, 24, 2016))
- [25] MJ. Moore, EM. Barr, TM. Johnson, "Sexual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2009 Youth Risk Behavior Survey results from 16 locations", Journal of School Health, vol. 83, no 1, pp61-68, 2013.
DOI: <http://dx.doi.org/10.1111/j.1746-1561.2012.00748.x>
- [26] M. J. Kim, "A study on the factors causing the female adolescents sexual activity -Focus on the peer group sexual experiences, social support and coping",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14, no. 4, pp. 63-74, 2003.
- [27] S. Y. Ryu, "An exploratory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part-time work experience and behavioral adjustm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6, no. 1, pp. 255-282, 2005.
- [28] K. Peltzer, "Early sexual debut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in school adolescents in eight African countries", Acta Paediatrica, vol. 99, no 8, pp. 1242 - 1247, 2010.
DOI: <http://dx.doi.org/10.1111/j.1651-2227.2010.01874.x>

이 규 영(Lee, Gyuyoung)

[정회원]



• 2005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정교수

<관심분야>

청소년 성 교육, 보건교육, 청소년 정신건강, 학교보건